

우리당 이원영 의원 “광주사태 군 투입은 질서유지” 발언

## 5월 광주는 분노한다

7 광주일보 제17447호 2006년 5월 15일 월요일

### 변호사도 자격증 없으면 부동산 중개업무 못한다

**대법원 판결**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이는 부동산 중개업무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14일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허용하라”며 변호사 이모(40)씨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호사들은 그 동안 일정 요건만 갖추면 추가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도 변리사·법무사·회계사 등 업무를 병행해 왔으나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중개업무 영역 진출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 제3조에 규정된 법률사무는 거래당사자의 행위를 사실상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치는 부동산 중개행위와 구별되는 것이며 일반 법률사무에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도 아니어서 변호사 직무에 부동산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변호사법 제3조는 “변호사는 당사자 및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해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을 그 직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서초구청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했다 반려당하자 “변호사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을 불허한 관할 관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2002년 8월 서초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 2심에서 패소했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변호사들도 수익 다변화를 위해 올해부터 등기 업무를 취급하기로 결정하면서 법무사회와 갈등을 빚었지만 일부 법무법인 등을 중심으로 등기업무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광주·전남지역의 등기업무 매출은 연간 340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원기자 cki@kwangju.co.kr

### 교회공금 32억원 횡령 김흥도 목사 집행유예

대법원 3부(주심 김형식 대법관)는 14일 32억여원의 교회 공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서울 금란교회 김흥도(68) 목사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횡령행위와 재산문제, 감독회장 부정선거, 여자문제 등 개인비리나 부정을 무마하거나 처리하기 위해 교회 공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임무 위배행위이며,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시민·5월 단체·네티즌들 강력 규탄

열린우리당 이원영(경기 광명) 의원의 최근 ‘광주사태’ 발언을 놓고 5월 단체와 광주시민, 네티즌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5·18과 관련, “광주사태의 군 투입은 질서유지 차원”이라고

발언한 뒤 비난 여론이 들끓자 14일 광주를 찾아 기자회견까지 열고 공식사과를 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 의원의 평소 생각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며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

‘5·18 민주유공자유족회’(회장 정수

만) 등 5월 단체는 14일 성명을 통해 “5·18 민중항쟁은 한국 민주화 발전의 초석으로 사법적 판결을 통해 부당한 국가공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자랑스런 저항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한 진의를 설명하고 5월 영령과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밝혔다.

5월 단체들은 또 “이 의원이 열린우리

당의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당에서도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면서 “(다른 정당에서도) 5·18의 숭고한 정신을 실추시킨 발언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오영운 광주시장 후보도 이날 성명사에서 “잘못된 역사관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며, 열린우리당의 창당 정신을 의심케 한다”며 “신군부세력이 1980년 시민군을 ‘폭도’라고 매도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도 이 의원을 비난하는 네티즌의 글이 빗발쳤다.

‘네이버’의 ID ‘innermost2’는 ‘손이 부르르 떨려 더 이상 자판을 두드리기가 힘들다. 반드시 내 손으로, 광주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잘못을 해주리라’는 글을 남겼고, ‘ktokji’는 ‘광주시민들(열린우리당에) 속지 마시다. 이젠 두 번 다시 속지 마시다’고 했다.

‘1952abc’는 열린우리당 자유계시판에서 “5·18 때 전두환장군이 나라를 구하진 영웅이라구 말하지 무슨 말을 그리 우회적으로했느냐”고 비난했고, ‘crying99’는 “그런말을 하고도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한다고하는가”라고 화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2일 평화방송(PBC) 라디오 시사프로 ‘열린 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80년 광주와 지금의 평택이 공통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광주사태는 직접적인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군이) 바로 투입된 것”이라고 대답해 논란을 일으켰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도청의 마지막 밤’ 재현

80년 5월 ‘도청의 마지막 밤’ 모습이 5·18 26주년을 맞아 재현됐다. 당시 시민군을 형성화한 동상과 음향, 상황실 내부를 그대로 살린 이 행사는 오는 25일까지 계속된다.

/이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스승의 날’ 앞두고... 고교 교사 안타까운 자살

#### 학교운영 싸고 의견충돌

현직 고교 3학년 교사가 야간 자율학습 시간을 전후로 한 조기퇴근 등 학교 운영 문제를 놓고 학교 측과 갈등을 빚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13일 오전 11시40분께 광주 I 고교 3학년 담임교사인 김모(45·수학)씨가 남구 진월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부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부인은 경찰에서 “전날 밤 학교 관계자와 술자리를 가진 남편이 이날 새벽 3시께 귀가해 ‘학교 운영 문제로 다투으며 이 과정에서 인격적인 모멸을 당했다’고 말하는 등 괴로워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교사는 야간 자율학습 근무조가 아닌 교사들의 조기 퇴근 등을 주장하며 학교 측과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학교 관계자 및 동료 교사와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학교 관계자와 욕설과 폭력을 주고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은 김 교사의 죽음에 대해 “우발적인 자살이 아니라 평소 학교의 보수적 분위기와 자주 마찰을 빚으며 받았던 스트레스로 인한 사고”라며 주장하고, 학교 측에 ▲진상 규명 ▲명예 회복 ▲장례는 학교장 ▲유족 보상 ▲해당 관계자 파면 등을 요구했다.

학교 측 관계자는 “학교 운영 문제에 대한 의견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폭력이 예기치 않은 자살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유서 및 메모 등이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유족과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자살 경위와 배경 등을 조사 중이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 대학생 축구하다 숨져 조문간 대학생도 변사

14일 새벽 1시30분께 광주시 동구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이모(25·C대 국문과4년)씨가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경찰은 음식물이 박씨의 목에 걸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이씨가 이날 조문을 간 후배 박모(21·C대 국문과 3년)씨는 13일 낮 12시10분께 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총장배 축구대회 도중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박씨는 혈액암 관정을 받고 항암치료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나원침 (6828) 김동주



**연예저널리스트**  
**대주 피오레**  
1,300여 부채 중 353명 353부채  
문의 (062)366-4220

장지에 간 사이 조의금 몽땅 털어가



○장지(葬地)에 가기 전 집에 두고 간 조의금을 몽땅 털어 간 신종 절도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

○14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11시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H아파트 4층 이모(여·46)씨 집에 2인조 절도범이 침입, 안방에 있던 조의금 3천700만원과 반지와 목걸이 등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는 것.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벽 2시 50분께 장지에 가기 앞서 조의금을 집에 두고 왔는데, 장례식을 모두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조의금과 반지 등 금품이 모두 없어졌다”고 진술.

○경찰은 이날 새벽 2시50분께 범인으로 추정되는 한 명의 모습이 아파트 폐쇄회로 TV에 찍힌 점으로 미뤄, 이들이 장례식장에서부터 미행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폐쇄회로 화면과 피해자 등을 상대로 수사 중.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光 助 日 報

## 5·31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 광고

5·31 지방선거는  
신뢰받는 선거관리위원회  
전문 유권자 중심  
시무장이 있습니다

www.kwangju.go.kr

**선거인명부 확인**

선거인명부 확인은 5월 17일부터 시작됩니다. 선거인명부 확인을 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

**투표권 행사 방법**

투표권 행사 방법은 5월 17일부터 시작됩니다. 투표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

**투표장 위치**

투표장 위치는 5월 17일부터 시작됩니다. 투표장 위치를 확인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

권주일보 | 062-227-9600